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몽블랑. 봄을 맞아 브랜드 홍보와 아웃도어 문화 확산을 위해 고객을 대상으로 고산 원정대를 모집하는 브랜드들이 늘고 있다. 센터폴은 9박10일간의 몽블랑 등정을 위해 최근 10명의 원정대를 모집했다.

스포츠동아DB

몽블랑·플라그...이름만 들어도 도전 욕구 샘솟는 그곳

아웃도어 '고산 등정' 프로젝트 열풍

아웃도어 활동의 '꽃계절'인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봄이 오면 겨우내 숨 죽였던 스포츠 아웃도어 관련 행사와 이벤트들의 붐몰이 터지게 된다. 스포츠 분야에 따라론이 있다면 아웃도어는 역시 산이다. 그것도 동네 뒷산이 아닌 고산을 오르는 원정대 열풍이 불고 있다.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고객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산'을 선택한 것이다. 원정대 모집은 아웃도어 브랜드들만의 독특한 프로젝트로 자리잡고 있다.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의 윤재익 이사는 "원정대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브랜드의 가치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극한 상황에서 아웃도어 활동에 직접 도전

하며 브랜드가 추구하는 가치와 제품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게 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로열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브랜드 밀레의 마케팅본부 박용학 상무 역시 "지난 시즌을 진행한 결과 참가 고객들에게 호의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심어주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밀레, 엄홍길과 명산 16좌 원정

밀레는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한국 명산 16좌 원정대 시즌2'를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6개의 명산을 엄홍길 대장과 고객이 함께 오르는 프로젝트다.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진행한 시즌1에는 2만2000여명의 고객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시즌2는 28일 칠갑산을 오르는 것으로 16좌 등정을 시작한다.

밀레, 엄홍길 대장과 '한국 명산 16좌' 준비 센터폴 '몽블랑 원정대' 6월 9박10일 일정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플라그' 정복 도전 라푸마 '백두대간' 중주 2년 프로젝트 진행

원정의 제 맛은 역시 고산등정이다.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센터폴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을 오르는 원정대를 모집했다. 총 10명을 선발했으며 3월 5일 발대식을 개최한다. 고산 원정대인만큼 준비과정도 철저하다. 3월부터 3개월간 서울 북한산 등에서 훈련을 한다. 6월 중순에 출국해 알프스 등반기지인 샤토니부터 몽블랑 정상까지 약 9박10일에 걸쳐 등반하게 된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필리핀 신의 놀이터' 도전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목적지는 필리핀의 해발 3000미터 야생의 고산이다. '필리핀 플라그 산 원정대'가 도전하는 플라그 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일명 '신의 놀이터'로 불린다. 탐험과 발견을 즐기는 전 세계

모험가들의 버킷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명소다.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6일간 진행된다.

라푸마는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중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3월 15일 지리산 천왕봉을 시작으로 2015년 10월까지 장장 2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다. 총 20개 구간을 월 한 차례씩 오르게 된다. 테마는 '색다른 산행'. 에코, 사랑, 호국, 젊음, 순수 등 매월 다른 테마를 정해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라푸마 마케팅팀 김영신 과장은 "참가자들이 유럽의 알프스, 미주의 로키산맥처럼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백두대간을 중추하며 아웃도어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양형호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방방곡곡 장인의 숨결따라 펼쳐지는 멋의 기행

TOUR & INFO

부천 김치테마파크, 김치명인 비법 전수 나누시 셋골선 염색 대가와 쪽염색 체험 울주군 웅기마을, 장인의 흔적이 곳곳에

혹한의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온기가 몸을 녹이는 봄이 왔다.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올해 첫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봄에는 전국 각지의 명인들을 만나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따뜻한 봄 햇살을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관광공사는 '장인을 찾아서'라는 테마 아래 3월에 가볼 만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손끝에서 피어난 맛과 멋

경기도 부천시 김주로의 부천문화원 한옥체험마을에 자리한 김치테마파크는 국내 김치명인 1호 김순자 명인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다양한 과정의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누구나 손쉽게 김치를 만들어볼 수 있다.

가족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인근에 위치한 한국문화박물관에 들러보자. 한국 문화의 역사와 발자취가 담긴 방대한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자유의 여신상 등이 축소 전시된 미니어처 테마파크 아인스월드도 볼 만하다.

아울러 국내 최초 로보 상설 전시장인 부천로보파크도 가족 나들이 장소로 인기가 높다.

●담금질과 두드림의 연금술사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 입구 누리장터에 자리한 삼화 대장간은 60년 넘는 세월 동안 쇠를 녹여 철제 도구들을 제작해온 야장(충북 무형문화재 13호)이 운영하는 곳이다. 도 지정 무형문화재 야장 김명일 선생이 직접 제작한 화로에서 쇠를 담금질하는 과정과 다양한 도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전통 무예 택견을 체험할 수 있는 충주시 택견 전수관과 충주세계무술박물관이 있는 충주세계무술공원도 함께 돌아보면 좋다.

●꽃빛으로 세상을 물들이다

중요무형문화재 115호 염색장 정관재씨는 쪽 염색의 대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셋골에서는 예부터 목화를 많이 재배했다. 염산감염에는 쪽이 많았다. 염산감이 유유히 흐르는 다시평야 한쪽에 있는 전수관은 쪽 염색을 전문적으로 배우려는 사람들과 쪽 염색 체험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나주읍성을 돌아보고 100년 전통의 공방을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또 영산포 황포돛배를 타고 흥어거리에선 흥어의 참맛을 즐길 수도 있다.

●독 짓는 장인들의 숨결이 깃들다

울산 울주군 외고산 웅기마을은 웅기 장인들의 숨결이 담긴 마을.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장인 8명이 이곳에서 직접 웅기를 만들고 가마에 구워내며 삶을 꾸려가고 있다. 웅기마을 곳곳을 둘러보면 지나는 골목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진다. 마당 가득 쌓인 웅기 외에도 전통 황토 가마, 웅기를 테마로 한 다양한 조형물에서 '독 짓는 장인'들의 흔적이 전해진다. 마을 뒤편에는 세계 각국의 웅기를 만날 수 있는 울산웅기박물관도 있다. 일출 명소인 간절곶이 가깝다는 것도 장점이다.

●오랜 전통 한과의 맛

강릉시 사천면 노동리(갈골) 한과마을은 산자와 강정 생산지로 유명하다. 현재 60여 가구가 한과를 만들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지난 2000년 한과 분야 최초로 전통식품명인(23호)에 지정된 최봉성 명인이 있다. 최 명인의 산자와 강정은 고급스러운 맛과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한다.

가까이엔 경포대, 선교강, 오죽헌을 비롯해 주말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인기 높은 안목커피거리, 커피 전문점 '커피커피'가 운영하는 커피 박물관 등 연계 관광지가 많다.

김영민 기자 diorys@donga.com 트위터@kimyke76



이번 봄에는 전국 각지 명인들의 숨결을 느끼며 따뜻한 날씨를 만끽해보는 것은 어떨까. 전남 나주시 다시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쪽물을 들인 아름다운 천의 색깔(위)과 울산 울주군 외고산 웅기마을에서 만나볼 수 있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다양한 웅기들. 사진제공 한국관광공사

3월엔 파스타 가게 꾸러블까?

파티게임즈 '아이리브파스타 for Kakao' 공개



인기 모바일 게임 '아이리브캐피'의 후속작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파티게임즈는 27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초 출시 예정인 '아이리브파스타 for Kakao(사진)'를 공개했다. '아이리브파스타 for kakao'는 파스타를 소재로 나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영시뮬레이션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이 게임은 6일 만에 사전 예약자가 15만명을 돌파하는 등 큰 화제를 불러모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게임 개발을 총괄한 이은재 PD가 이탈리아 베니스를 옮겨 놓은 듯한 게임 속 배경과 게임 속 주요 건물, 재료 구하기와 서빙 등 게임 시스템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기존 소셜게임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게임 시스템이 최초로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일명 '게임 속 게임'이다. 새로운 파스타 메뉴를 요리할 때 같은 재료 짝 찾기 게임, 요리 재료의 후라이팬 터치 게임, 신속한 서빙 리듬게임 등을 즐길 수 있다.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아이리브파스타 for Kakao'는 '아이리브캐피' 특유의 게임성은 더욱 계승 발전시켰고 그래픽 퀄리티는 업그레이드 했다"며 "게임의 소재가 파스타인만큼 특히 20~30대 젊은 여성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말했다. 또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선 "라인업을 늘리는 한편 해외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기업공개(IPO)는 준비됐지만, 주변 여건 등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이리브파스타 for Kakao'는 3월 초 카카오 게임입하기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이젠 광역시에서도 LTE 속도가 두 배!

이동통신사 3사 전 광역시 '광대역 LTE' 상용화

이젠 전국 광역시에서도 기존 'LTE'보다 두 배 더 빠른 '광대역 LTE'를 경험할 수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내달 1일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모든 광역시에서 광대역 LTE를 상용화 한다. 광대역 LTE는 인접한 두개의 LTE 주파수 대역을 연결해 기존 LTE(75Mbps)보다 두 배 빠른 150Mb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소비자들은 기존 LTE 단말기로는 최대 100Mbps의 속도를, LTE-A 단말기로는 최대 150Mbps의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번 광대역 LTE 서비스 지역 확대와 연계해 광대역 LTE와 또 하나의 LTE 주파수를 '듀얼기술(CA)로 연결해 3배 더 빠른 속도(225Mbps)를 내는 '광대역 LTE-A' 서비스 상용화도 동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가장 빨리 광대역 LTE 서비스에 나선 KT는 3월1일부터 모든 광역시에서도 광대역 LT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아울러 최고 속도 225Mbps의 광대역 LTE-A도 서울 및 수도권과 모든 광역시의 상용 네트워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광대역 LTE-A를 지원하는 단말기가 출시되면 곧바로 기존 LTE보다 3배 빠른 네트워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도 3월1일부터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전국 광역시까지 확대한다. 또 광대역 LTE와 LTE-A의 커버리지를 동시에 넓혀가는 '투-트랙 네트워크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1.8GHz 전국망 확대가 완료되면 기존 LTE보다 3배 더 빠른 225Mbps 광대역 LTE-A 전국망이 구축된다는 얘기다.

LG유플러스도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전국 광역시에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3밴드 멀티캐리어(Multi Carrier)기술을 통해 보다 쾌적한 네트워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반기 중엔 80MHz폭의 LTE 주파수를 활용해 최대 300Mbps의 3밴드 CA도 제공할 방침이다.

한편 이동통신 3사는 광대역 LTE의 전국망 서비스를 7월경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

MS '서피스2' 내달 14일 국내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는 태블릿PC '서피스2(S2)'를 내달 14일 국내 정식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품은 PC와 태블릿의 장점을 결합한 MS의 첫 번째 태블릿PC '서피스 RT'의 후속작이다. 성능이 향상됐으며 기존에 조절 불가능했던 키스탠드가 2단계로 각도 조절이 가능해져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엔비디아 테그라4 프로세서와 풀HD 해상도의 10.6인치 클리어 타입 디스플레이(1920x1080)를 달았다. 후면 500만 화소, 전면 35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배터리도 기존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향상됐다. 운영체제(OS)는 '윈도우 RT.8.1'이 적용됐다. 김영민 기자



블랙야크 강태선 회장 '경영자 대상' 수상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 ㈜블랙야크의 강태선(사진) 회장이 27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제28회 경영학자 선정 경영자 대상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경영학회(회장 박홍수)가 선정하는 '경영학자 선정 경영자 대상'은 경영학과 관련한 30여 학회의 모임인 한국경영학회가 사회적 책임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경제·사회발전에 공로가 큰 모범 기업인을 표창하는 상이다.

강회장은 탁월한 경영능력과 창조적 리더십으로 토종 아웃도어 기업을 40여 년간 이끌어오며 업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 아울러 국내아웃도어의 기술력과 블랙야크만의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해 한국 아웃도어 업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선 점을 인정받아 경영자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양형호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f